

전북자치도, 농식품부 사업 선정 쾌거

‘2025년도 농촌융수개발 신규지구 사업’에 익산·정읍·완주 선정… 물 환경 개선·농업생산 기반 혁신 ‘기대’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5년도 농촌융수개발 신규지구 사업’에 익산, 정읍, 완주 3개 지구가 최종 선정돼 총 665억 원(국비 640억)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생산 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목표다.

농촌융수개발 사업은 농업용수 부족 지역을 대상으로 용수공급체계를 개선하거나 신규 저수지를 설치해 안정적인 물공급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가뭄, 노후시설 문제 등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선정된 지구는 △익산 용안지구(논범용화 용수공급, 120억 원)

△정읍 애당지구(농촌용수 체계재편, 385억 원), △완주 원송지구(다목적 농촌용수, 160억 원)로, 전국 13개 선정지구 중 3곳이 전북에 포함돼 지역의 용수 공급체계 혁신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익산 용안면 용안 논범용화 용수공급 사업은 금강 하류의 수원을 활용하는 중심의 용수공급체계를 발작물과 원예작물 등 다양한 작물에 대응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한다. 정수시설을 설치하고 맑은 물을 공급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정읍 소성면 애당 농촌용수 체계재편 사업은 흥덕저수지의 여유 수량을 하류 지역으로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양수장과 관로를 새롭게 설치한다. 이를 통해 물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완주 화산면 원송 다목적 농촌용수 사업은 반복되는 가뭄과 수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목적 저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신규 저수지를 중심으로 수자원 분배의 균형을 맞추고, 지역의 물 순환 체계를 안정화해 영농 환경을 개선한다. 향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핵심 기반시설로도 활용될 수 있다.

각 지구 사업은 공통적으로 노후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자동화된 운영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농업현장에서 물관리의 효율을 높인다. 이를 통해 생산성은 물론 재해 대응력까지 확보할 수 있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사업성과를 계기로 2026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지구 발굴과 타당성 검토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용수공급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정부 정책에 발맞춘 전략적 대응을 통해 농촌 물환경의 전면적인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농촌융수개발 사업은 단순한 기반시설 정비를 넘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촌지역의 활력을 동시에 높일 중요한 전환점이다”라며 “전북이 지닌 농생명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 제2산단 · 수변도시 조성 성공 추진 | 새만금공사, 김제시와 협약 체결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 이하 ‘공사’)는 16일 김제시(시장 정성주)와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31일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로 지정되고, 4월 18일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김제시로 결정됨에 따라 양 기관이 협력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새만금 제2산업단지 및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현안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사업 지역에 광역기반시설이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국가 예산 확보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 협력하여 추진하는 등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16일 김제시와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새만금개발공사 제공)

나경균 공사 사장은 “김제시와의 협력을 통해 새만금 제2산업단지와 수변도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형 산업단지와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와 혁신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업무협약

으로 새만금 제2산업단지와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특히 “새만금 제2산업단지가 대통령 공약인 RE100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두 기관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첨단산업 중심의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인·허가를 준비 중이며,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올해 2·4공구 조성공사를 발주하고 하반기에 1공구 근린생활시설용지와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첫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만호 기자 · 김제=곽노태 기자

‘소방법률지원 제도’ 시행 1년… ‘두 마리 토끼’ 잡았다

1년간 55건 자문으로 전문성 강화 기여 · 고문변호사 체계 연 3800만원 예산 절감 효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소방법률지원 제도가 시행 1주년을 맞아 전문성 강화와 예산 절감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소방법률지원 제도는 소방직 변호사의 장기 공백에 따른 법률 지원 대체 방안으로 마련돼, 지난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소방본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024년도 680만원, 2025년도 1,26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고문변호

사 3명을 위촉해 운영해왔다. 제도 시행 1년 동안 총 55건의 법률 자문이 이뤄졌으며, 자문 내용은 소방관서 계약서 검토, 관계 법령 해석, 소송 대응, 예산 집행 관련 쟁점 등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이 같은 법률지원은 현장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소방직 전담 변호사 채용 시 연간 약 5,000만원의 인건비가 필요한 반면, 현재의 고문변호사 체계는 연간 약 1,200만원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약 3,8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고문변호사 수수료는 ‘전북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해 월 4건까지 30만원, 이후 건당 5만원을 가산해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방본부는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지난 15일 고문변호사 간담회를 열고 운영 성과를 공유했으며, 향후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실무 적용상의 어려움과 개선 사항이 폭넓게 논의됐으며, 자문 수요 증가에 따른 위촉 인원 확대, 자문 절차 간소

화, 사례 축적 체계 구축 등의 제안이 제시됐다.

앞으로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자문 수요를 반영해 고문변호사를 최대 5명까지 확대 위촉하고, 실제 자문 사례를 정리한 사례집을 발간해 일선 소방관서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전문 변호사 채용 없이도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 자문 체계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행정과 법률 전문성 간 균형을 갖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해 도민의 신뢰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내 농생명산업 발전 이끈 숨은 주역 찾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생명산업 발전에 기여한 숨은 주역을 찾는다.

도는 ‘2025년 제3회 전북농생명산업대상’ 수상 후보자를 16일부터 9월 5일까지 각 시군 농업부서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전북농생명산업대상’은 전북이 농생명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제정된 상이다.

시상은 △지속가능 농어업 △활력 있는 농어촌 △미래먹거리 농생명 등 3개 부문으로 나뉘며, 각 부문별

도, 제3회 전북농생명산업대상 수상 후보자 접수 시작
농어업인 · 단체 대상… 농산물 생산 등 3개 부문 선정

로 개인 또는 단체 1명을 선정한다. 지속가능 농어업 부문은 우수한 농산물 생산과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활력있는 농어촌 부문은 농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자를 선발한다.

미래먹거리 농생명 부문은 식품,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등 첨단 농생

명산업 분야에서 기술 개발과 산업화에 기여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후보자는 지역사회 기여도, 공적의 혁신성, 도덕성과 모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되며, 수상자는 11월 ‘전북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상패와 메달을 수여받게 된다.

접수는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해당 시·군 농업부서에서 받으며, 접수 양식은

전북도청 누리집 ‘공고/고시’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접수 후 소관부서의 예비심사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생명산업대상은 현장의 혁신을 이끄는 숨은 주역들을 조명하는 뜻깊은 상”이라며 “각계각층에서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천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 관광으로 미래 연다

도,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대표 자원 소개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7홀에서 열리는 ‘제10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KITS)’에 참가해 도내 대표 관광자원과 관광산업 성과를 소개한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는 국내 대표 관광 산업 박람회로, 약 300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해 500여 개 부스를 운영하며, 국내외 관광 콘텐츠를 소개하는 대규모 행사다. 특히 여가생활 확대와 관광 수요 다변화에 대응하는 In-Out-Intra Bound 통합형 박람회로, 지자체와 여행사, 항공사, 관광벤처 등 다양한 관광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자리로 평가된다.

전북도는 이번 박람회에서 도내 14개 시군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관광 콘텐츠를 총망라한 홍보관을 운영

할 계획이다. 최근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폭작 속았수다의 촬영지 △고창 청보리밭, ‘스물다섯, 스물하나’의 배경이 된 △한벽굴 등 전북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영화 촬영지를 소개하며 관광객의 흥미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홍보관에는 관광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해 관광객에게 맞춤형 여행 코스를 제안하고, 단체 관광 유치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전북 관광 전담 여행사도 현장에 참여해 도내 관광상품을 실시간으로 소개하고 판매로 연계하는 등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 성과를 꾀한다.

이밖에 박람회 1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개막식을 비롯해 B2B 바이어 상담회, 전문가 특강, 해외 도시 설명회 등 주요 행사에도 참석해 관광산업 네트워크를 넓힐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고속도로 화학사고 예방 · 신속 대응 ‘맞춘’

전북환경청, 환경공단 · 도로공사 협력체계 구축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호은)은 16일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본부장 정운섭), 한국도로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직무대리 이용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준영)와 함께 고속도로에서 화학물질 운반 차량의 사고 예방과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고대응에 필요한 상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른 기관별 역할로써 전북환경청은 협업 체계 구축·유지, 운반차량 안전운행 관리 및 대국민 캠페인, 방재 물품·장비와 사고 물질 정보 제공 등을 담당한다.

환경공단은 방재장비함 설치와 물품 비치를 담당하고 협업 체계 운영과 대국민 홍보를 지원하며, 도로공사는 화학물질 운반차량 우선 주차공간과 비상 방재장비함 설치 장소를 제공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해 차량통제 및 도로 정보 등을 제공한다.

협약 체결 이후 전북환경청은 협약 기관과 함께 오는 23일 오수휴게소 상·하행선에서 화학물질 운반차량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안전운행 및 화학사고 예방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9월까지 새만금-포항고속도로 마이산휴게소(상·하행)와 순천-완주고속도로 춘향휴게소(하행)에 방재장비함과 화학물질 운반차량 우선 주차공간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새만금청, 집중호우 대비 긴급 현장점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예보됨에 따라 7월 16일 새만금 지역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호우 대처를 위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중부지방과 호남권을 중심으로 최대 150~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새만금 산업단지 건설 현장과 비탈면, 배수로 등을 중심으로 긴급 점검에 나섰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상임위, 올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기획행정위 · 경제산업건설위 · 농업복지환경위 등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16일, 기획조정실, 전북연구원, 인권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최형열(전주5) 위원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농협중앙회, 마사회 등 일부 기관의 경우 타 시도와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북도의 대응은 소극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계획과 목표를 수립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명지(전주11) 의원은 새정부 출범 이후 당정 핵심 보직에 전북 출신 인사가 대거 포진한 만큼 이를 정치적 기회로 삼아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도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청년 대상 일자리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된 50대 이상 신중년층을 위한 일자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일자리가 절실한 신중년 세대의 특성을 언급하며, 이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도 환경산업국, 보건환경연구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전북에 국가예산을 대거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며,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숙원사업과 지역현안 사업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구 대한방직 부지(전주관광타워 종합개발) 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심의 진행 여부 및 심의위원회 구성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 평가 항목의 공개 가능성과 함께 절차적 투명성을 갖춘 지속적인 상황 공유를 요청했다. /이만호 기자